



모든 것을 여러분 주인공에 틀어박히게 맡겨놓으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불교에 귀의한 지가 한 25년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잘 되지 않을어요, 아예 잘 안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슨 작정을 하나 했습니다. 계획을 하나 세웠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돌장승이 얘기 낳는 법을 알아야 불법을 안다.' 이런 구절이 있어서 거기에 무척 공감이 가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예정을 해 가지고요. 그런데 스님, 여기에 지도 말씀이나 편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그런데 돌장승이 어린이에 낳는 걸 봐야만 되고 어린이를 낳아야만 된다고 하셨는데...

질문자: 낳는 도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큰스님: 도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 여직껏 말씀드린 것이 헛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돌장승 아니라 꽃나무도 얘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예? 이 고목나무도 얘기를 낳을 수가 있고, 돌장승뿐 아니라 일체 만물이 다 얘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육체가 탄생을 했지 정신이 탄생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는, 육체가 탄생을 해야 정신이 탄생할 수 있다. 내가 탄생을 해 봐야 장승이 어린이에 낳는 도리를 알지, 어떻게 알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계획을 세웠다 이 소립니다.

선생님께서 얘기를 낳아 보세요, 그러면 돌장승이 얘기를 낳는 도리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정말입니다. 돌장승이, 얘기를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여덟 개도 낳고 마흔 개도 낳고 이래요. 그래 가지고 마흔 개가 다 그냥 하나도 뺐다가, 하나가 없기도 했다가 이러거든요.

그러니 그 도리를 완전히 터득하시려면 계획이 없이 하세요. 계획이 없이 그대로, 지금 그대로... 네? '돌장승이 얘기 낳는 것도 너만이 알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가, 자꾸 돌 쪼듯이, 깨닫게 하는 것도 너고, 이끌어 주는 것도 너고,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너고, 장사가 잘되게 하는 것도 너고 못되게 하는 것도 너니까, 잘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할 수 있죠. 물을 먹어 본 사람이 못맛을 알듯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큰스님: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해야죠. 칼을 뽑았으면 하늘을 꿰어야죠. 허허... 애쓰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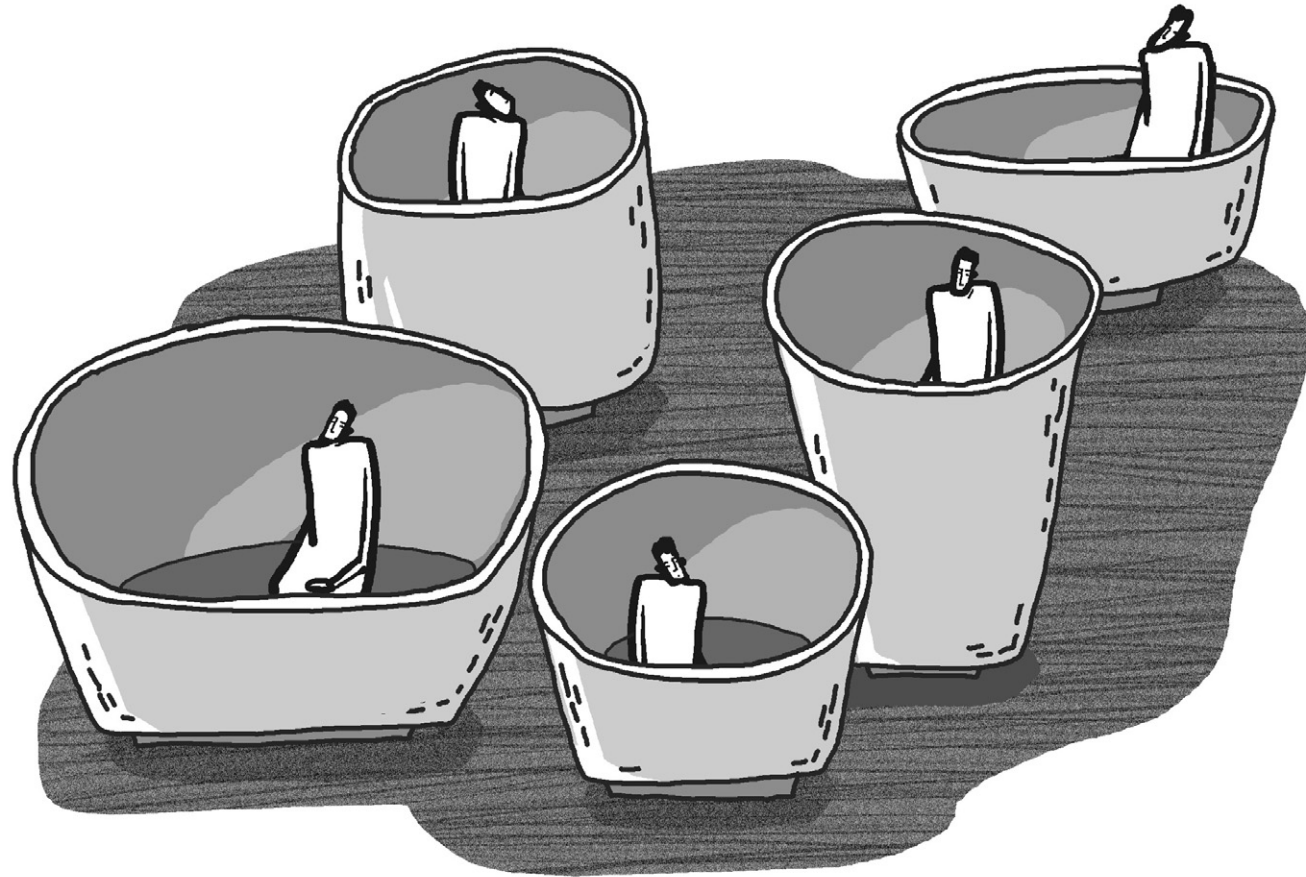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3(남): 저는 불자로서 생활하면서 부딪치는 숙제라고 그럴까, 그런 어려움에 관해서 한 말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착한 행을 하면 복이 온다 해서 항상 착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이나 나의 성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일이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인연법에 따라서, 이것이 인연이니 하고 나 스스로 나의 본성을 죽이고 저항 없이 그냥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말씀하시는 것이 똑똑히 들리진 않았지만 어슴푸레하게 들긴 들었습니다. 하여튼 방향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맷돌

축 있죠? 축을 갖다가 제대로 쫓지 않았으면 물건을 넣고 갈아도 제대로 갈려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판 방향으로 나갑니다. 마구 그냥 쫓아집니다. 그와 같습니다. 똑바로 끼워야죠.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아래 위가 똑바로 심봉이 끼워져야 제대로 일하며, 전자와 전자줄이 한데 제대로 이어져야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로, 그대로 끼워져 있는 거니까 그대로, 저 나무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있듯이,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왜 자기 뿌리를 안 믿어요? 그렇다면 형상을 믿을 겁니까? 그럼, 형상도 내 몸과 저 형상이 틀어박히지 않아요.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과 틀어박히지 않아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과 틀어박히지 않아요, 또는 부처님의 생명이

내 생명과 틀어박히지 않아요. 그거 동글게, 모나게 하지 말고 동글게, 일평례(一頂禮)를 하더라도 동글려서 일심(一心)으로써 진실하게 일체를 올려도 올려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판 데로 나가는 거는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내기 이전의, 내 마음의 선장을 올바르게 투시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욕심대로 나가는 생각이 80%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건 3%밖에 안 되니까, 비중이 더 큰 데로 돌아가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크게 먹으려면 진짜 여기서 (염주를 들어 보이시고), 이 줄에서, 뿌리에서 그 싹을, 전체를 살리고 있으니까 '너밖에 할 수 없다.' 고 다 맡기고 심부름꾼으로만 사세요. 사자, 관리인, 사

실 따지고 보면 관리인입니다. 심부름꾼이고 따지고 보면 속의 생명들의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람 전체 몸뚱이의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여러 생명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틀어박히지 마세요.

그러니 마음 쓰기에 달려 있으므로 이 몸뚱이 속의 모든 의식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아주 고정적으로 입력이 돼 있는 의식들이 마음 씩씩이에 의해서 바로 화(化)해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 주게 해야, 업보성 인과성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이 모두가 무너져서 내 마음 하나로 돌아가게끔 돼야 판 데로 흘러지실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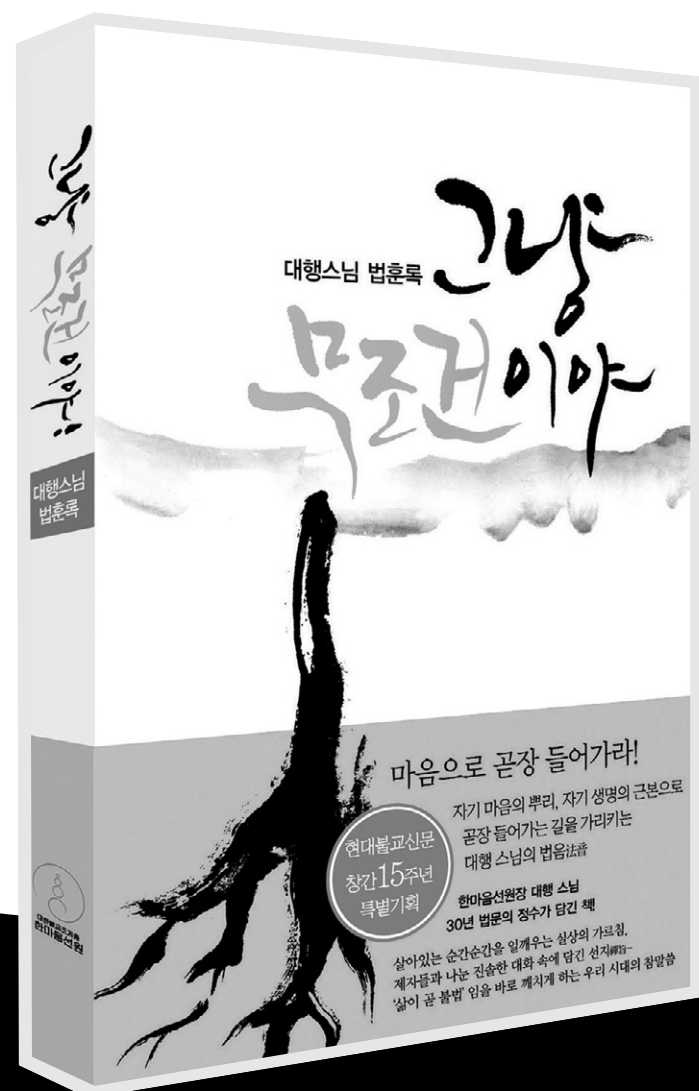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이 되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다 같이 이름해서 부처죠. 나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까지... 그래서 내가 그랬죠? 분수를 알아서, 내가 얼마만한 그릇이란 거를 알고 해라 이겁니다. 내가 내 그릇에 이만한 걸 담아도 손색이 없을까 하는 걸 미리 알아차려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분수도 모르고 요만한 그릇에다가 (컵을 가리키시며) 드림통으로 하나를 갖다가 집어 넣는다면 이게 담겨집니까? 그러니까 첫째 분수를 알고,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고도 없이, 진짜로 믿는다면... 나는 내가 하려고 한 것에서 벗어난 얘기 한번도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처음에 여기 왔던 해에 김장할 다라이가 없어서 '다라이가 없으니 어떡하나. 김치를 해서 오는 사람들을 모두 줘야 할 텐데.' 하니까, 그 이튿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라이가 열 개 들어왔어요. 왜냐? 그게 이심전심이지요. 이 모두가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내 마음내기 이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난처하게 생각 마시고요, '왜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변연히 알고도 이렇게 판 데로 가나.' 이렇지 마시고 죽든지 살든지 진짜로 믿으세요. 아니, 더 잘 살려고 아무리 해봐도, 그렇다면 차라리 아예, (염주를 가리키시며) '아젠 너 알아서 해!' 하고, '나는 부지런히 뛰어줄게. 너 알아서 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는 게 더 상책이 아닐까요? 더 살기가 편하고요. 이거는 내가 한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산다. 내 거다.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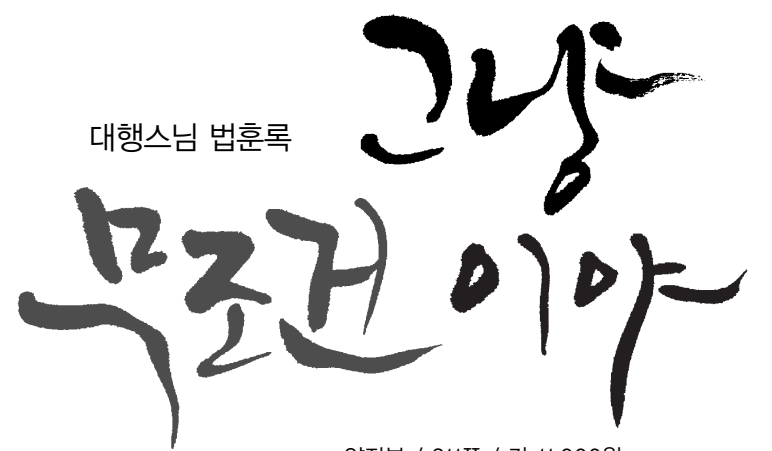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입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뿌리가 있어 나무가 있듯 자기 근본을 철저히 믿어야

29면에서 계속

내가 망했다 이란다면 어휴, 그거 사람이 한 생 사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쪽 쉬고 저 세 살 먹은 애, 다섯 살 먹은 애가, 학교 에 다니는 애들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를 믿고 그냥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보세요. 그리고 책이 없어도 '아, 아 버지가 사 줄 테지.' 하고 말이에요. 공책이 없다면 '공책이 없어, 아버지!' 그러면 사 주듯이, 이 렇게 편리하게 사세요. 그러면 편 방향으로 안 갈 겁니다.

질문자3(남):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볼 수 있습니 까? 내가 부처님이 되어야 상대도 부처님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분별심이 없어지지 않고 잡재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대인관계에서 큰 손해를 보고, 급기야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스님: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것이 시발점이 돼서 종교를 믿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 (염주의 매듭 부분을 가리키시며) 와 가지고 여기를 한번 뛰어넘어서... 이게 말 하자면 생사에 관한 건입니다. 물질세계에서 이 리로 와서 여기를 다시 뛰어넘으면 이제 피안의 세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간다 이 런 소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살아서 열반이라고 하는 경계입니다. 죽어서 열반은 없 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모든 것을 놔서 죽은 세상까지 돌아야, 살아 있는 세상과 죽어 있는 세상이 동시에 같이 있는데 거기를 찰나찰나 이 렇게 한 바퀴 돌 줄 알아야, 모가 나지 않게 돌아 갈 줄 알아야, 50%와 50%를 합쳐서 100%를 같 이 굴릴 줄 알아야 이게 됩니다. 지금 뭐라고 그 러셨죠, 처음에 물으실 때? 허허하...

질문자3(남): 어떻게 상대를 돌로...

크스님: 내 듣고도 또 말하면서 잊어버렸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와야 그 돌이 아닌 도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자식이 됐다가 부모가 돼요. 부모가 됐 다가 또 한 번 옷을 벗고 한 번 돌아오, 돌아서 다시 탄생을 해 보니까 탄 부모한테 또 태어났 어요, 인연에 따라서. 그러니까 또 탄 부모의 자 식이 되더라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탄 모습으 로다가,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서 짐승의 자식이 돼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돌고 돌다 보니 까 내 자식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부모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형제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공동묘지에 가 보니까 남녀노소도 없고 그대로 늙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깨쳐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줄과 염주알이 돌이 아니다. 뿌리와 싹이 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뿌리

의 세계를 알아야 뿌리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 로 나오면서 자부 화(化)해서 모습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 인연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 그런 거 를 다 이렇게, 50%만 아는 게 아니라 100% 돌아 가면서 알아야 '아, 모두가 돌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진실하게 알지 내가 직접적인 행을 해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먹어 보 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돌이 아닌 줄 알겠습니 까? 그러나 이렇게 죽었다 깨어나고, 깨어났다가 죽고 이라는 도리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 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도리를 알게 됩니다. 내 과거에 살던 나와 현실에 살던 자기와 돌이 아니게 상봉을 해야 진짜로 그런 도리를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리고 알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알게 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 나가 없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네 부모네 부모 아님이 없이 자비를 베풀

것은 그거와 같다 이겁니다. 입력이 돼서 나오 는 데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진다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드렸으니까요.

내가 대답을 서투르게 해 드리더라도 여러분 은 좀 지혜롭게, 너그럽고 등글게, 이렇게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난 배우지 못해서 그런지 그 용어를 방편으로 빨리빨리 대치를 해서 애길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하하하...

질문자4(남): 제가 지금 나이가 선물이거든요. 사실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자기 자신의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애 기 낳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나의 생활로 생 각되는데, 저의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는 저의 부모로 생각되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걸 현재 로 생각할 것 같으면 저희 자식이 미래라고 생

또 바다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이란 그저 내 자식, 내 재산, 내 것 만 아는 개별적인 그릇으로서만의 얘기고, 부처 님께서는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모든 생명들이 다 내가 될 수가 있고, 나로서 행할 수가 있고, 나로 나투면서 이끌어 주시는, 즉 말하자면 보 현보살, 관세음보살, 뒤 갖은 이름의 일체 보살 이 다 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일 체 각계 각종 중생들이 다 될 수가 있으니까 부 처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서 그런 거니까, 그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시라는 점에서 나는 이 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로 행으로, 또는 돈을 잘 주거나 옷을 잘 입히거나 잘 먹이 거나 이러한 것이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을 하는 것은 정신력 을 길러 주는 것이고, 그 보배를 찾게 하는 것은 전 세계, 전 우주를 맡겨 주는 거나 다름없는 겁

니까 '주인공! 그 뿌리는 너하고 나하고 돌이 아 니야. 그러니까 주인공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 다.' 즉 말하자면 뿌리만이 싹을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면서 걸으로는 부드럽게, 진짜 진실로써 그렇게 해 주고 한다면 정말 이 고(苦)의 테두리에서 몰락 벗어날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착한 자식이 되고 화목을 가져오고, 질서를 문란치 않게 할 수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됩니 다.

질문자4(남):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크스님: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는데,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다 허공에 서 사는 것 같지만, 자유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벗어나질 못해서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덩어리 자체도 자유스럽게 구르 지를 못하고 매여서 삽니다. 우리도 매여서 살 고 있고요.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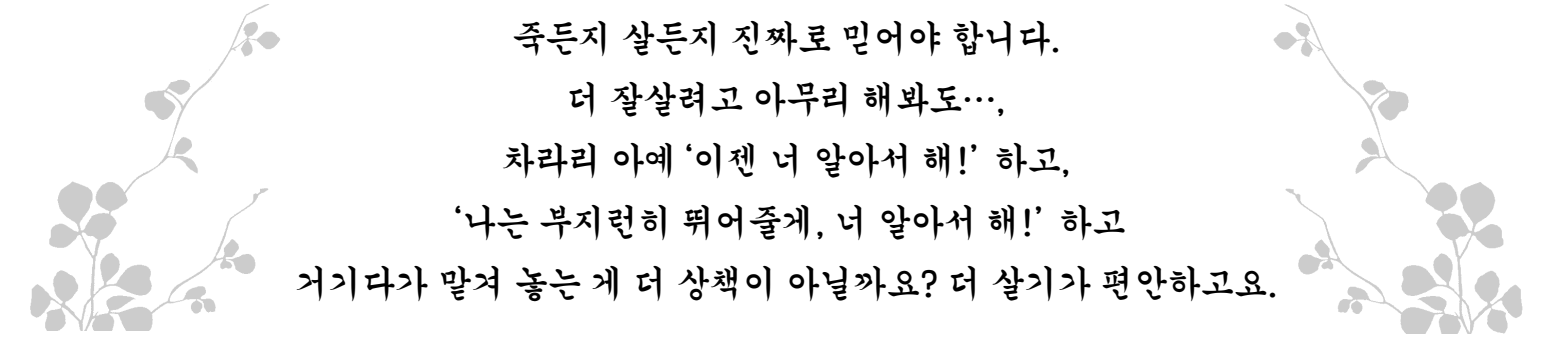
그러나 모습들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우 리의 마음이 어찌 벗어날 길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벗어난다면 내 육체가 모습을 만 가지로도 화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결 로도 되고 저결로도 되고 만법의 행을 그대로... 보살이 될 때도 있고, 중생이 될 때도 있고, 짐승 이 될 때도 있고, 곤충이 될 때도 있고, 꽃나무가 될 때도 있고, 어떠한 큰 목신이 될 때도 있고, 여 러 가지가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세 상에 있는 거라는 거는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령기 때문에 부처라고 했고 여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아신다면 무엇이 든 다 될 수 있는 체험도 하시고... 깨달아 그 령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염주를 들어 보이 시며) 이 원 안에서 벗어나서, 내 몸 안에서 벗어 나서... 이 원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서로 도반으 로 한마음 도리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자 체가 너무도 즐겁습니다. 왜, 금은 금방에 모이 고 넘마는 넘마전에 모이고, 무쇠는 무쇠전에 모이고 사람들도 까리까리 모이고 이러죠? 그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차원인지, 금차 원이예요. 하하하... 하여튼 감사합니다.

사회자: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자 상한 가르침을 주시는 크스님께 저희는 항상 감 사드립니다.

크스님: (부처님을 보시며) 저, 깨달으시면요, 저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서 삼천대천세계를 활 용하신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하하하... 아무 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또

※ 위 법문은 1994년 4월 3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 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더 잘살려고 아무리 해봐도...

차라리 아예 '이젠 너 알아서 해!' 하고,

'나는 무지런히 뛰어줄게, 너 알아서 해!' 하고

거기다가 말져 놓는 게 더 상책이 아닐까요? 더 살기가 편안하고요.

풀 수가 있고 마음을 낼 수가 있지, 어떻게 알지 도 못하는데, 어떻게 너 나가 따로 있다고 생각 하는데 '아이고, 돌이 아니다.' 이럴 수가 있겠 습니까? 그러나 모습이 돌이 아니라는 게 아니 라 그 마음이 돌이 아니다, 영혼이 돌이 아니다 이겁니다. 영혼이 돌이 아니라면 진짜로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습은 따로따 로 각각 있을지언정 한 줄에 꿰었다 이겁니다. 한 줄에. 이 염주알은 따로따로 있으나 한 줄에 꿰여 있으니까 너 나가 돌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한 발견을 해야 하시겠죠, 확실하게.

그러나 발견을 못했어도 '진짜로 뿌리의 세계 는 그렇게 돌이 아니구나. 영과 영이 만 개가 한 데 합쳐도 영은 영이고 바로 돌이 아니구나.' 이 런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자비 를 베풀고 사랑을 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 을 증오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하신다면 자식의 업보도, 남편의 업보도, 아내의 업보도, 부모의 업보도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것 입니다. 여기 실전을 아주 잘하고 가시는 분들 도 많은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면서 도 실제로 체험하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 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자기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와 비교를 해서 얘기해 드렸으니까요. 한 찰나에 없어지는

각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옳 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 보니까 자식들의 즐거움이 저 의 즐거움보다 더 좋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하는 것도 자식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 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 말 씀 좀 부탁하겠습니다.

크스님: 아버지이니까요. 하하하... 이 세상의 어떤 회사든 중역으로 돼 있는 사람은 중역이기 때문에 직원을 다스려야 한다는 책임이 있습니 다. 그렇죠? 또 택도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아버 지가 되기 전하고 아버지가 돼 가지고는 다릅니 다.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더러운 것도 볼 수 있고, 망나니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너그러움이 있는 거지 만약에 장가들기 전이라면 탄 자식들이 그 령기니까 아버지가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나 아버 지가 돼서 자식들을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 니라. 그러나 곤충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이 다,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을 하는 그 부처의 마음은 모두 갖춰 가지고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 나 부처님의 마음은 찰나찰나 나투면서 아니 되 시는 게 없기 때문에 청수애다가 비유를 하고

니다.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 분 가정에서 부부기간에 사랑이 없고 어떠한 문 제가 있더라도 그대로 사랑하면서, 그대로 부드 럽게 행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거기가 다 다 맡기면, 서로 남편이다 부인이다 하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까지 불 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모든 나쁜 습성을 고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 령게 하라. 또 자식도 몸을 잡아서 되는 것도 아니 고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잘해 줘서 되는 것도 아니다. 단 하나, 그 모든 업식을 녹여 주면 스스로 밝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 신 주인공에 돌 아나게 맡겨라."라고 하는 겁니 다. 바로 거기서만이 부드럽게 행하게 하고, 아 주 정말 보배스러운 인간으로서 자유인이 되게 끔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고, 모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 고, 자비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심상하게 키워 주 고 보배를 찾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건 거 짓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연방 해 보세요.

나가서 뭐 어떻게 하고 다니더라도 잘대로 욕 하거나 때리지 마세요. 또 부부기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 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속에 들어 있는 업 보가 그러는 거니까, 바로 의식들이 그러는 거

거사로 보는 중국불교사

중국불교의 거사들

거사, 중국불교를 일으키다

거사들의 생애와 활동, 사상을 통해 중국불교를 읽는다!

중국에 불교가 뿌리내리고 역사 속에서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가 거사들의 뛰어난 활약이 있었다.

이 책은 중국불교의 대표적인 거사들이 당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불교를 위해 헌신하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개괄하였다.

김진우 저/신국판/37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서점: 붓다북 www.buddhabook.co.kr

티벳불교의 보리도차제법, 대원만 예비수행의 지침서!

大圓滿前行引導文

대원만 수행 요결

-꾼상라매셀롱

A Guide to the Preliminaries of the Great Perfection

밀교와 현교를 관통하여 성불의 길로 이끌어주는 수승한 정법!

어떻게 번민을 잠재우고 평안을 얻을 것인가?
번뇌의 불을 끄고 진정한 행복과 자제함을 가져다줄 최고의 가르침!
다양한 경전과 논서를 넘나들며, 알기 쉬운 해설로 진실한 발심과 성불의 길로 이끌어주는 안내자!

직매 최가왕뵈 저·수다지 캄뵈 한역·지업역/신국판양장/574쪽/값 28,000원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